

觀光地의 環境汚染防止와 對策

만들어진 폭넓은 社會現象인 것이다. 換言하면 인간이 어디론가 가고 싶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人爲的 요소가 결합하여 형성시킨 필수적인 觀光생활을 말한다.

현재 세계가 當面한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는 社會정의의 실현과 생태계의 「창조와 질서의 보전」이다. “文化와 自然은 觀光의 資本”이며 최근 자연중심의 觀光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있는 추세이다. 觀光산업은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촉매자이며 폭력자, 관리자이다. 과거에는 觀光산업이 無公害産業(Smokeless Industry)이라 불렀지만 여행자의 대이동은 자연과 환경파괴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는 觀光의 기회와 이를 뒷받침하는 觀光개발사업도 늘어나 需要, 供給에 따른 균형문제, 限定的인 자연환경차원에 대한 過多한 觀光개발과 觀光자의 過利用으로 인한 파괴와 오염은 중요한 해결문제로 많은 개발 기획자의 관심이 되고 있다. 특히 한정된 자연환경자원의 管理는 觀光개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한편 觀光은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자연이, 자연과 人工의 만남이기에 대부분의 환경이 곧 觀光대상이 될 수가 있어 破壞, 汚染, 枯渴시키지 않는 환경의 이용은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도전요소이며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다. 자연환경은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System)」으로 우리나라의 公업화 역사가 20년에 불과한데도 생태계의 파괴는 엄청나 경제성장의 주기가 짧아수록 늘어나는 폐기물, 엔트로피도 增加되어 마치 “약을



김흥운 /

한양대학교 觀光학과 교수, 공학박사

1. 피서와 觀光

피서와 觀光이라는 것은 생활변화를 追求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欲求와 경제사정의 好轉, 가치관의 변화, 기계화 작업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增大, 교통수단의 향상 등 제반 조건이 함께 어우러져

많이 복용할 수록 병원의 환자수도 증가하는 것”과 같은 原理를 밟고 있다.

관광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便益을 가지고 있으나 잠재적, 현실적으로 환경에 대한 위협요소가 많으며 환경악화에 관광객과 관광산업이 加害者가 되고 있다. 또한 관광지의 파괴와 오염이 더욱 深化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효과만큼이나 환경파괴의 負의 效果도 가져오고 있다. 앞으로 관광은 생활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 자연과 관련된 욕망과 함께 自然歸巢的 (back-to-nature)인 형태가 늘어나는데도 우리의 관광개발은 자연환경관리에 무방비상태에 와있으며 사전계획 보다는 사후 결과로서 判斷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환경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表出되고 있다.

국토관리에 있어서 무책임한 개발이나 당국과 개발자들의 자연에 대한 관심부족, 전문적인 지식의 未洽, 이용자에 비하여 부족한 관광의 空間, 상대적으로 짧은 여름의 피서기간, 자연과 문화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市民意識의 부족 등은 높은 수준으로 개발시켜야 할 중대 과제이다. 특히 자연과 문화를 이해 못하는 관광태도는 國家的, 時代的인 과제이다. 관광산업에서 快適과 安全性的의 보장은 매우 高次的인 복지정책으로서 21세기의 주요 핵심이 되는 주요 정책과제이다. 환경이나 오염문제가 관광지에만 局限되는 것은 아니다. 인스턴트(Instant)식품과 1회用 物品의 범람으로 생활은 편리하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는 “쓰레기 戰爭”으로 전국의 관광지나 생활주변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 우리는 자연보호나 쓰레기에 관한 교육에 너무 소홀히 하며 살아왔다. 옛날에는 낚은 짚신이나 오물은 함부로 버렸는데 쉽게 썩었기 때문에 환경교육이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정은 다르다.

2 환경오염의 실태

우리 주변의 관광지뿐만이 아니라 백두산에서도 한국인이 버리고 간 라면봉지가 즐비하고 뿐만아니라 기독교성지순례에 갔던 일부 관광객이 순례지의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페인트로 써놓는 등의 추태가 연출되기도 하였다. 이제는 오염의 악습이 國際化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미국이나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일찍부터 환경보호운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이 이를 생활화, 토착화하도록 힘써 왔다. 우리도 60년대 경제개발의 成長爲主 정책에서 자연보호의 절실함을 절감하여 이 운동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만족할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觀光論理의 부족으로 자칫하면 錦繡江山이란 뜻마저 잃어버릴 지경이다.

도시생활에서 오는 압박과 긴장감 그리고 여가시간에서 오는 무료와 갑갑증을 풀어주는 관광지가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관광지에서의 오염은 原子力汚染을 제외한 모든 환경오염이 적용되는데 특히 하천 상류에서의 수질오염은 대부분의 관광지가 산과 강을 끼고 있어 食水源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통계에 의하면 1993년 7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2,410만명 즉 전국민의 반이상이 산과 강과 계곡을 찾아 나섰고 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가 운전으로 기동성있는 피서를 하고 항공이용, 가족단위의 피서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피서지에서는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과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특히 해수욕장의 모래속에 파묻거나 숲속과 바위틈에 버려지는 몰염치, 음주소란, 고성방가, 풍기문란, 자연훼손 등은 나아진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도시생활에서 잠시라도 대자연의 품속으로 찾아 드는 것은 단순한 休息이나 스트레스해소 이상의 心身修養이고 자연과 같은 생명체로의 自淨作用을 겸한다. 사람이 많이 몰려 든다고 반드시 관광지가 오염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인과가 끊이지 않으면서도 항상 깨끗한 관광지를 선진외국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깨끗한 자연에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이면 의례히 오염과 파괴가 따르는데 이것은 자연을 찾는 사람이 제대로 자연과의 만남을 가질 줄 모르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산과 바다에서 그 지역에 어울리게 가려서 즐길 줄도 모르고 캠핑이나 등산을 하면서 자연속에서 명심해야 할 원칙이 자신이 다녀 갔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캠핑을 했을 경우 쓰레기 처리가 미흡하고 바닥에 깔았던 풀도 치우지 않고 물고랑도 원상태가 아닌

그대로이고 炊事때의 수목의 피해나 바위의 그늘림에도 세심한 주의가 없다.

관광지의 분위기를 좋치는 또 하나의公害는 카세트의 騷音이다. 음주후에는 노래와 춤이 꼭 따라야 하는지, 자가운전이 늘어나는 탓인지 出入이 금지된 지역까지 차를 몰고 간다. 주차장에서의 윤리와 도덕은 아랑곳 없다. 차안에서 창 밖으로 쓰레기를 날려 보내는 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다. 자연과 관광지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論理는 매우 단순하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빈병, 플라스틱, 비닐류는 물론이고 휴지나 담배꽂초를 버리지 않는 것임에도 이를 모르고 있다.

自然의 자정작용이 그 힘을 잃어가는 실정이며 우리는 관광지를 제대로 유지하여 즐기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숨통이 트이지 못하게 놀아서 산과 바다를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통, 고성방가를 함부로 부르는 料亭이 되어가는 형편이며 자연속의 관광지는 내집의 庭園이라는 觀念을 잊고 있다.

秘境의 관광지인 紅島의 풍난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유일의 식물자원인데 관광객의 무분별한 채취로 滅種위기에 있고, 전래의 몇개 溫泉觀光地는 수자원의 과용으로 자원고갈에 직면해 있으며, 석회암의 천연동굴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 너무 많은 傷處를 입은 참담한 모습으로 일그러져 太古의 秘境이 없어지고 있다. 심지어 동굴 입구에는 종유석을 잘라 만든 수석품이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 여기에 90년부터 실시된 취사금지로 한동안 깨끗함을 되찾는가 했던 주요 국립공원, 대도시 근교 녹지, 강변, 시민공원 등이 다시 무분별한 취사로 快適해야 할 休息處가 음식찌꺼기와 악취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산불의 위험도 있다.

취사도구를 준비하지 않은 行樂客들은 주변의 가게에서 도구를 빌려 계곡에서 찌개 따위를 끓여먹고 계곡물에는 상추, 빈칸, 나무젓가락 등이 둥둥 떠다니고 주부들은 기름기가 베인 석쇠판을 洗劑로 씻고 있다. 계곡 곳곳에서는 어김없이 화투판이 벌어지고 고기를 굽고 쓰레기와 악취가 한데 어우러져 惡臭가 진동한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장료를 받으나 행락객들이 워낙 많아 단속의 손길이 닿지 못한다고

아우성이다. 지방의 국립공원은 물론이고 한강 고수부지도 밤만되면 「거대한 식당」으로 변하고 있다. 강물에는 일부 시민들이 버린 음식쓰레기와 맥주병, 부탄가스통 등이 떠다닌다. 특히 식수원의 강물은 이제 自由財가 아니고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經濟財이다. 물에 대한 가혹행위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폭력이다. 물을 지키는 것은 감시와 운동만으로는 안되고 重罰도 중요하지만 공해의 불감증에서 깨어나 병든 의식을 하루 빨리 教化되어야 한다.

피서지에서 너도나도 카세트라디오를 틀어놓아 산속의 캠프장이 도심의 다방을 연상케 한다. 노래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담배연기가 남에게 피해를 주듯이 노래소리도 다른 사람에게 심한 공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엄청난 오염의 不感症은 문제의 개발자나 이용자, 공무원, 일반시민들 속에도 유사한 증세로 깊이 잠재해 있다. 이같은 환경오염의 不感症은 매우 심각하다. 한편에서는 環境團體, 市民모임의 환경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데도 이런 행위를 위협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들이 짜증과 불만을 주는 우리의 현주소가 된다면 우리의 세계화는 낙동강에 버려진 오리알 신세가 될지 모른다.

3 對 策

질푸른 山의 精氣, 밀려오는 파도를 그리며 마냥 들떠서 떠나는 避暑旅行, 그 자연의 싱그러움이 보존되게 하기 위해 나쁜 아니고 그곳을 찾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기 위해 피서지나 유원지에서도 지켜야 할 에티켓은 필수적이다.

아직도 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보호의식이 희박하여 휴가철때나 유명한 산과 계곡이 쓰레기로 수난을 당한다는 예는 우리는 가끔적 흔적을 남기지 않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식수터에는 피서철이면 많은 사람이 물리는 곳이므로 떠오기만 하고 세수, 빨래, 쌀과 채소를 씻는 행위는 삼가야 하겠다.

이제 쓰레기를 자연속의 휴식처에서 그 처리를 줌

細心하게 할 필요가 있다. 캠핑 또는 취사장소엔 비닐봉지 등으로 두개의 쓰레기통을 마련해야겠다. 한쪽엔 쉽게 썩는 음식찌꺼기, 과일 껍질등을 담고 다른쪽엔 비닐 종이등 태울 수 있는 것을 담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하여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분리 수거해야 하며 깡통이나 빈병도 이처럼 분리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환경보존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이렇게 섬세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環境保全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사람은 마땅히 生態系에 善한 행동을 해야하고 상태윤리의 으뜸은 “節約”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다. 가능한 자동차의 이용을 節制하고 연료효율을 생각하며 자동차 대신 하이킹, 트레킹, 자전거를 많이 利用하고, 水道의 낭비를 막고 바다오염을 막아야 한다. 전기를 절약하고 가정기구를 점검하고 쓰레기를 再生, 再循環시키는 실질적인 일들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내와 국제적 수준에서 환경적 고려는 관광자의 권리(環境權)와 의무(倫理綱領)가 적당히 결합되어야 하고 이것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정보와 교육훈련으로 사후관리에 특히 힘써야만 한다. 이제 관광사업자들이나 企劃者들도 환경보호론자들과 같은 입장에 서서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환경파괴의 가장 큰 문제는 과밀과 혼잡이다. 환경에 否定的 效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광활동의 臨界水準을 정해 수용량을 定量化해야 한다. 비록 관광지 이용에서 適定數의 파악에는 수학공식은 없으나 시차별로 시행시기를 분산한다든가 마치 호텔이나 비행기 좌석수와 같은 「利用豫約制」를 도입하는 등 끊임없는 경계를 떠나가야 한다.

정부, 기업, 소비자와 관광산업 모두는 관광지오염의 加害者들이다. 인간의 오염행위, 소비행위, 자연에 대한 간섭과 무관심, 관광지의 과밀현상과 과잉개발 등 선진국과 국내의 사례를 보고 가능한 개발계획을 自制하거나 最小化해야 한다.

닭을 죽이지 않고 달걀을 계속 얻기 위해선 觀光防禦의 개발을 위해 관광사업과 自然保護가 통합되어야 한다. 환경위기를 맞아 관광산업체는 자발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참여하고 정확한 環境影響評價를 해서 인류생존의 공동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빠른 경제성장과 번듯한 물리적인 施設이 발전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自然保全」도 훌륭한 관광개발이다. 한국은 「山高秀麗」한 字句에서 高麗란 이름이 由來한 만큼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지구상에서 하늘이 가장 맑기로 유명하여 금수강산이라 불렀다. 이런 땅이 세계 제1의 공해와 오염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反歷史的, 反文化的인 형태이다. 우리 조상들은 대체로 전망이 좋은 곳에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 전망대, 누각, 정자를 만든 삶의 예지가 있었다. 또 해수욕이나 모래찜질을 敗俗이란 비난이 있었지만 流頭日에는 냇물에서 白伸日에는 산과 바다로 찾아 난장판도 벌였으니 오늘같은 서구문화의 찌꺼기인 방중에 젖지는 않았다. 우리는 미래 인류가 지구촌에 공존하기 위해 生態系나 文化의 다양성을 오래도록 누리게 해야 한다. 관광에는 영광과 불명예가 공존하고 있는데 관광객 모두는 前者를 위해 그리고 人類의 破局을 막기위해 힘써야 한다.

세계화를 주창하는 이 즈음에 과거와 같은 행락의 무질서는 추방해야 한다. 피서를 떠나기전에 어린 자녀의 교과서에서 「바른생활」을 다시 한번 읽고 떠나자. 질서가 얼마나 좋은것인가하는 그 포편적 원리를 음미해 보면서.....